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성덕대왕 신종 9년만에 타종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이 9년 만에 다시 울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박영복)은 훼손 가능성 때문에 1992년 제야의 종 이후 타종을 중단한 성덕대왕신종의 안전한 관리와 이상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9일 오전 10시 타종키를 쳤다고 최근 밝혔다.

신라 해공왕 7년(771)에 조성된 성덕대왕신종은 지난 1992년까지 서울 보신각종과 함께 매년 12월 31일 제야에 타종되다가 타종이 보존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중단해 왔다.

경주박물관은 신종의 지속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한 차례씩 축환기를 피해 타종하고, 진동 및 음향신호의 측정과 기록, 주파수 분석을 통해 보존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경주박물관 측은 "신라 문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만큼 타종을 통해 학술조사는 물론 온 국민이 신종 소리를 듣는 데 동참하도록 문화제 행사로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보조사상연구 국제학술발표회 '신라 불교학' 열띤 설전

"구전성과 비의성(義性)을 특징으로 하는 의상계 화엄학파는 폐쇄적이고 이론적으로 자기 완결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 (사토 아츠시·동양대학 강사) "비의성이 다른 교학과 집단에 대해 '달린 사상'을 뜻하는 것이라면 화엄사상의 본질에서 벗어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해주 스님·교수)

"의상계 화엄학과 화엄교학만 심화"

사토 아츠시

"의상학과 '법'보다 '법성'에 주목했다"

해주 스님

사토 아츠시 씨는 '실천적 화엄사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의상계 화엄학파의 성격을 한 마디로 '구의성과 비전성'으로 규정하고, 무주(無住)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오적성불론'을 그 사상적 특징으로 제시해 논쟁을



9월 22일 열린 보조사상연구 국제학술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의상계 화엄사상의 특징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

불러 일으켰다. '오적성불 사상'은 오적의 자기 신체가 곧 진리와 일체라는 의상학파의 사상을 다른 화엄학과 구별하기 위해 발표자가 붙인 용어. 사토 씨는 '화엄경'과 '기신론' 양자를 다 같이 중시했던 당시 풍조와는 달리 의상계 화엄학파는 오로지 '화엄경'이나 화엄교학만을 심화시킨 학파'라며 "화엄경"만을 특화된 배타성 때문에 한국 내에서조차 고려의 천에 의해 비판받게 되었으며 중국화염이나 일본화염과 달리 다른 집단이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해주 스님은 "의상 중심이라면 몰라도 화엄경 중심의 교학이 이해서 전파될 리가 없다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주장대로라면 의상학과가 중시한 것은 법이라는 말이 되는데, 법보다 법성을 중요시했고, 오적이 아니라 오적법성에 주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적법성 성불사상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팔만대장경 선역본' 국내 출간

고려대장경연구, 北과 계약... 영인본 17권 묶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1937년 인경(印經)해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해 오던 판본을 저본으로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가 우리말로 쉽게 풀어 펴낸 <선역본> (전 17권)을 최근 영인본으로 출간했다. 북한측과 정식 계약을 맺어 출간한 것은 처음이다. <선역본>은 팔만대장경 전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은 아니다. 한국 불교사와 관련이 있는 중요 경전과 불교를 이해

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만한 경전 22종 294권을 번역하고 다시 17책으로 묶었다. 전체 분량의 5% 정도에 해당한다. 한문을 모르더라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 만큼 자연스럽게 생생한 번역이 <선역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얼마 전 중국역경원에서 완간한 <한글대장경>의 <미사색부해오분음>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한문학자들이 번역해 전문서에서는 다

소 떨어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악도(三惡道)로 부르는 것을 <선역본>에서는 '세 갈래 나쁜 세상'으로, '법행(法行)'을 '깨끗한 행실'로 번역하고 있다. 또 '선(善)의 법, 무기(無記)의 법'으로 번역하는 '선무기법(善無記法)'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최근 영인본으로 출간한 북한 <팔만대장경 선역본> (전 17권).

권형진 기자

약학소식

▲불교학연구회 = 제8차 학술발표회를 13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연다. 이병욱(고려대 강사) 씨가 '육도론은 부정지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저서인가', 김무봉(동국대) 교수가 '장수경어해'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02)2260-3128.

▲보조사상연구회 = '지눌사상의 집적적 탐구 IV'를 주제로 27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제13차 정기학술회의를 연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스님(단경발문), 최병현(서울대) 교수(비명), 심재홍(서울대) 교수(화엄론 절요), 김희성(서울대) 교수(절요사기), 박상국(문화재단연구소 예능민속실) 실장(염불요론)이 발표를 맡는다. (02)733-5315.

"종교간 평화없이 세계평화 불가능"

'지구 공동사회...' 국제학술회의서 제기

미국 테러 사건과 이에 대한 보복 전쟁의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분쟁 및 종교간 대화를 모색하는 국제평화학술회의가 9월 27~28일 열렸다. 5분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 제2분과인 '화해와 협동을 위한 종교간의 대화'에는 불교와 가톨릭,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와 주요 종교 관계자와 학자들이 참여해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진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우리는 종교간 평화 없이 세계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겪어오고 있다"며 "무조건 대화의 기회를 갖고 보면 뜻밖의 긍정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슬람회 이희수 회장(한양대 교수)은 "7세기 이슬람이 창시된 이후 1300여 년 동안 이슬람과 동아시아 문화권은 뚜렷한 마찰이

나 적대적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 왔으며, 특히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주고받음은 대단했다"며 "우리 문화의 기층에 서아시아 이슬람 문화의 요소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한국외대신학교 부회장은 "중국에서 유불도 삼교가 과거 2~3천년 간 유불종교 전성 없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의 포용성 혹은 종교적 관용주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태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권정콩** '金檀花' 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열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불어나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울 자극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러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처럼 귀중하며 꽃처럼 만개하려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권정콩의 이름이다. 선식권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물에 감정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 약침을 200일간 담그고 두었다가 꺼내어 100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을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8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행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떡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고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권정콩은 특이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꾸준히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당뇨 관련하여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 상담문의 ☎ (02) 3437-8282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이연골정제로 안전해방'

발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안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이연골정제' 상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이연골정제'는 닭이 없지는 않음으로써 생생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

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특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나고 있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 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 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한 몸매 무리가 가지 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지리산자락 우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지요?

토종 양파와 비법만인 자연산 참다슬기로 삼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자락 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기마술)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체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우주구천동 깊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참다슬기 육은 것과 빈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육을 녹여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원리하여 넣고 황겨 97g을 넣은 뒤 황겨를 불을 쬐고 그 열로 다슬기가 망아지 물이든 빈 껍데기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 데 왕겨가 타 타들어가기까지 6박 9-10일 걸린다. 한달분은 1.8리터이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